

‘광주ON’ 오픈 5년...시민 소통 ‘OFF’

광주시 2019년 3월 플랫폼 오픈...이용자 갈수록 감소 채택 기준 까다로워 제안 2562건 중 ‘채택’ 69건 그쳐 시 “타 지역 대비 적지 않지만 활성화 계획 마련하겠다”

광주시가 개설한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온(ON)’이 오픈 5년만에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광주시는 2022년부터 시 홈페이지에 광주온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019년 3월 오픈한 온라인 시민 정책 제안 플랫폼 ‘바로스통광주’가 전신이다.

민선 8기들어 설문조사 기능을 추가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하고 이름은 ‘광주온’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광주온 이용객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제안(일명 ‘듣는다’) 항목에 게시된 제안 건수는 2021년 79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507건, 2023년 239건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대부분 제안이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제안을 채택하는 기준도 까다롭다. 제안 이후 30일 동안 ‘공감’ 50표를 받고 100명 이상의 찬성·중립·반대 의견(토론)을 받아야 시민권익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광주온에 등록된 시민 제안은 총 2562건이나, 이중 ‘정책 권고’로 이어진 사례는 단 69건(2.6%)에 그쳤다.

이밖에 74건(2.8%)은 심의 결과 불채택 처리됐으며, 94.4%에 달하는 241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접수된 시민제안 239건 중 정책 권고까지 이뤄진 사례는 9건(3.7%)에 불과했으며, 26건(10.8%)은 불채택, 204건(85.3%)은 요건 미충족으로 남았다.

설문조사(‘묻는다’)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 참여도 저조하다.

시민정책참여단 단원 수는 3만 3272명에 달하나 설문 평균 참여율은 1회당 3000여명(11.8%)에 그쳤다.

또한 총 34회 설문을 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설

문에 참여하지 않은 단원이 1만 8364명(55.5%)에 달했다. 단 1회만 참여한 참여자는 4361명(12.9%), 2회 이상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1만 547(31.7%)명이었다.

시민정책참여단은 온라인에서 9345명, 오프라인에서 2만 3927명 모집됐으며, 오프라인으로 모집된 단원은 각종 행사장 등에서 모집한 경우가 다수다.

시민정책참여단이 10~20대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원 중 10대는 333명(1%), 20대 또한 3287명(10%)에 그치는 실정이다. 나머지는 30대 5311명(16%), 40대 6229명(19%), 50대 7199명(22%), 60대 6562명(20%), 70대 4351명(13%) 등이다.

광주시는 올해 광주온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설문 참여 시 은누리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공하고, 설문조사 등 정책 반영 결과를 알림톡으로 발송하는 등 유인책을 활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시민제안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심의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기존 ‘30일 이내 공감 50, 토론 100’ 기준을 ‘30일 이내 공감 50’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앞서 광주시는 ‘바로스통광주’를 운영할 때 시민제안 심의 조건으로 ‘공감 100개, 토론 1000회 이상’을 내걸었다가 1년만에 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광주시는 또 광주온 이용자 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는 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 시도에 비해 시민정책참여단 참여율 등이 크게 부족했던 것은 아니나, 보다 폭넓게 시민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지는 못해서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광주시민들의 제안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어느새 봄 포근한 봄날씨를 보인 2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의 호수 ‘용지’에서 시민들이 수양버들 사이로 산책을 즐기고 있다. 이날 광주는 낮 최고기온이 15.8도까지 올랐으며 10mm 미만의 봄비가 내렸다. /니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산불 위기경보 광주·전남 26일까지 ‘반가운 봄비’

산불 위기경보가 내려진 광주·전남지역에 26일까지 ‘반가운 봄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 낮 12시부터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 전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24일 예보했다.

이번 비는 26일 오후에는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10~40mm다. 전남 남해안을 일부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mm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비는 내리지만 기온은 평년수준을 회복해 비교적 온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광주·전남 아침최저기온은 8~11도로 평년(0.5~5.9도)보다 높으며, 낮 최고기온 또한 12~15도로 평년(12.3~15.7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6~9도, 최고기온은 11~15도로 분포해 평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거문도와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나섰다

‘3자변제’ 수령 거부 4명의 자녀들 일본으로...면담·배상 촉구키로

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 공탁을 거부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직접 찾아가 사죄와 배상을 촉구한다.

피해 당사자를 대신해 가족들이 전범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것은 처음이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24일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온 원고 4명의 자녀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제철 원고 이춘식, 미쓰비시중공업 원고 양금덕·고 박해옥, 미쓰비시중공업 원고 고 정창희 할머니의 자녀다.

이들은 25일 법률대리인, 지원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전범기업들을 방문해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한 면담을 신청한다. 면담이 거부되면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4시 일본 중의원 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 한국 원고의 가족·유족의 목소리를 듣는 모임’에 참석, 전범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국인 시민모임 이사장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3월 피고 일본 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면서 “가해자 기업의 배상 책임은 교묘하게 흐려지고, 한국 정부와 피해자 간의 갈등처럼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제3자 대위변제 배상금 공탁에 나섰지만 법원이 불수리 처리함에 따라 정부가 법원의 조치에 대해 항고를 제기해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주요 대학 글로벌 대학30 지정 신청서 제출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이 글로벌 대학30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남대는 지난 22일 글로벌 대학 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연합대학을 꾸린 조선대·광주대·광주여대·남부대·송원대 등 5개 대학도 혁신기획서를 냈다. 호남대와 동신대도 혁신기획서를 접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Global, Global+Local)대학 30’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 육성책의 하나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0

곳을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 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 혁신의 허브가 될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 글로벌대학 예비지정을 통과한 전남대는 이번 평가에서는 본평가에 바로 진출한다.

교육부는 4월 말이나 5월 초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7월 중 본지정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10곳에 이어 교육부는 올해 추가 10곳을 글로벌대로 지정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